

북한 주민의 주거생활실태와 주거행동에 관한 연구*
- 탈북인 대상의 면접 및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ousing Life Situations of North Koreans and Their Housing Behaviors Based on the Interview and Empirical Survey with Defectors

서원대학교 가족환경학과
부 교수 김대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기춘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이가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은영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순형
순천향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부 교수 박영숙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최연실

Dept. of Family Resource Studies & Housing, Seowon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Dae Nyun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l Univ.

Professor : Rhee, Kee Choon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l Univ.

Professor : Lee, Ki Yo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l Univ.

Professor : Rhee, Eun 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Professor : Yi, Soon Hyung

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 Soonchunhyang Univ.

Associate Professor : Park, Young Sook

Dept. of Family & Child Welfare, Sangmyung Univ.

Assistant Professor : Choi, Younshil

* 본 연구는 1997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점영역 연구지원 과제에 일부임.

〈목 차〉

- | | |
|----------------|---------|
| I. 연구배경 및 목적 | IV. 결 론 |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Abstract〉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ies have been segregated during the past 50 years with different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ideologies resulting in disparate living cultures, even though sharing the same traditional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housing life situations of North Koreans, their housing behaviors, and their perceptions of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culture. The study wa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and an empirical survey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defectors and the empirical survey was done with 158 North Koreans who escaped after 1990. This study revealed housing life situations such as housing type, length of residence, housing layout, finishing materials, levels of housing facilities, and the residential system. It also revealed housing dissatisfaction and housing behaviors while they were living in North Korea, and attempted to discover the defectors' perception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ir housing life in the South and North.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ill present a realistic and recent account of the housing situation in North Korea. We hope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serve to foster understanding between two Koreas.

I. 연구배경 및 목적

단일민족이 거주하는 작은 땅덩어리인 한반도에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이한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체제를 형성한 남한과 북한은 장기간의 분단상황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서 점차 이질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질화된 체제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동안에 남북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각기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굳혀 왔으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은 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영향력이 가장 일상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반영되는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 영역에서도 예외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통일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남북한 주민이 전통적인 요소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문화와 연결시켜서 남북한의 이질화현상과 통합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그 의미가 크며 생활문화 중에서도 인간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생활에 대한 연구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인간은 어느 사회에 속해 있거나 그들 나름대로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러한 주거환경은

물리적인 조건 그 자체로서도 그 사회의 제도, 경제 및 문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또, 주거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에는 그 사회구성원의 규범, 가치, 의식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거생활은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연구환경을 보면, 1990년에 들어서면서 소련 및 동구 공산체제의 와해, 중국의 문화개방 등 국제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국내적으로는 북한관련 정보의 개방화 추세,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탈북인의 대거입북,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확대 등으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연구하기에 보다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관련 문헌의 출판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문헌들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북한 당국의 간행물을 기본 자료로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렇지 않은 문헌인 경우에도 북한 주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일상생활에 관한 부분을 매우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문헌에 수록된 주거관련 내용은 북한 주민이 실제로 경험한 삶의 모습을 근거로 주거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법보다는 거시적인 접근으로 북한의 주택정책, 수요와 공급, 도시발전 등에 대한 현재의 상황이나 미래 예측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의 주거생활실태와 주거행동을 미시적인 접근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남북한 생활문화에 있어서 이질화된 부분들과 공통적으로 남아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여 상대문화의 인정과 수용을 모색해 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주거생활 문화의 통합과 창조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비교적 최근에 남한에 입국한 탈북인들로 구성하였으며, 분석자료는 그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주거생활을 토대로 수집되었다. 북한 주민의 주거생활실태는 주택유형, 주택유형별 거주기간, 주거공간의 구성, 주택의 마감재료, 주거설비의 수준, 주택의 입주제도와 주거비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주거조절 행동은 주거불만족과 주거개선에 대한 희망, 실제 경험한 주거조정과 주거적응 행동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또, 탈북인들이 남한에 와서 주거생활을 하면서 인식한 남북한간의 차이점을

조사하여 남북한간의 이질화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북한 주민의 주거생활실태와 주거행동을 밝히려고 시도된 본 연구의 결과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의 문화충격을 완화시키고 민족화합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남북한 이질화와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탈북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두 유형의 조사방법 즉, 면접조사와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생활전반에 걸친 7개 영역(의생활, 식생활, 주거생활, 소비생활, 생활시간, 가족관계, 아동양육) 중에서 주거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별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면접조사

면접조사는 1996년 10월부터 1997년 2월까지 2주간격으로 실시되었으며, 진행방법은 문헌연구와 영상자료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면접을 실시한 질적인 사례연구방식이 이용되었다. 주거생활과 관련된 면접조사의 내용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 입사증 제도, 주택유형과 주거규모, 주거생활 수준, 주거욕구와 주거기대 등으로 구분되었다.

피면접 대상자는 1990년 이후의 탈북인으로 국내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으며 선정시 연령, 직업, 교육수준, 탈북시기, 탈북 전 거주지 등이 고려되었다. 이들 탈북인의 선정과 접촉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지 문항 및 문항 양호도의 검토를 목적으로 설문조사 실시 전에 진행된 탐색조사는 10명의 탈북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면담하면서 미리 작성한 설문지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 측정도구 중에서 북한 주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문항은 주택유형, 거주기간, 주거공간의 구성, 주택의 마감재료, 주거설비, 주택입주 제도, 주거만족과 불만족, 주거행동으로 구성되었으며, 탈북인들이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인식한 남북한 주거생활의 차이점을 묻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질문 방식은 문항의 성격에 따라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혼합되어 사용되었다.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북한생활을 체험했던 국내 거주 탈북인으로 연령, 직업, 교육수준, 탈북 전 거주지, 탈북시기 등이 고려되어 선정되었다. 설문조사의 자료수집 절차는 탈북인 관련 국가기관의 협조를 받아 질문지를 회신용 봉투와 함께 발송하여 탈북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질문지를 전달받은 탈북인들이 응답하여 우편으로 회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발송된 질문지 200부 중에서 163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부실기재된 5부를 제외한 158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적인 통계치가 주로 사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면접조사와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각기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면접조사 대상자는 1990년 이후에 탈북한 사람 10명으로 여자 7명, 남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연구의 성격이 생활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서 여자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령분포는 30대 4명, 50대 3명, 40대 2명, 20대가 1명이다. 교육수준은 대졸 4명, 고졸과 중졸이 각각 3명이며, 탈북 전 직업은 연구원, 물자공급소 소장, 식료공장 공원, 미용사, 벌목공 등 다양하다. 탈북시기는 1994년 이후가 9명, 1993년 이전이 1명이다. 탈북 전 거주지는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평양 등이다. 피면접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기춘 외 6인(1997)의 연구에 제시되어 있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탈북인 15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고(41.4%) 다음으로는 30세 미만(22.6%), 40대(19.5%), 50대(16.5%)의 순이며 평균 연령은 38.0세이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약 7:3이다. 교육수준은 응답자의 56.4%가 대졸 이상으로 밝혀짐으로써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탈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탈북 시기는 94년 이전(48.4%)과 95년 이후(51.6%)가 반 정도씩이며, 입국시기는 97년이 가장 많아 비교적 최근에 남한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탈북 전 직업은 사무직 등의 인텔리 전문직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많으며(31.0%), 노동계층(23.3%), 군인이나 당 간부, 외화벌이꾼 등의 상류계층(19.4%), 학생 또는 유학생(6.2%), 개인농민, 자영업, 운전기사 등으로 다양하나 상층의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다. 탈북 전 가족수는 3-4명이 가장 많고 5명 이상이 그 다음으로 평균 가족수는 4.2명이며, 탈북 전 가족형태는 핵가족(부부가족 포함)이 72.4%로 많다. 탈북 전 거주지와 출생지는 모두 도시가 농촌보다 많다. 북한에서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1원, 월평균 지출은 640원으로(1992년 기준 당·정기관의 부장급 300-350원: 내외통신사, 1994; 103) 매우 높은 편이다. 탈북시 가족을 동반한 경우는 52.9%로서 동반하지 않은 경우(47.1%)보다 약간 많으며, 응답자의 44.7%가 노동당원이었다. 이로써 본 설문조사 대상자들은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교적 높은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기춘 외 6인(1998a)의 연구에 서술되어 있다.

2. 북한 주민의 주거생활실태

북한 주민의 주거생활 실태는 주택유형, 거주기간, 주거공간의 구성, 주택의 마감재료, 주거설비 수준, 주택의 입주제도와 주거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주택유형

설문조사 결과, 탈북인이 거주했던 주택(복수응답)의 유형은 옛날집, 독집, 연립주택, 아파트이었으며, 가장 많았던 주택유형은 아파트(37.7%)이고 다음으로는 독집(24.5%), 하모니카집(21.1%), 옛날집(7.8%)

등의 순으로 나타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에서 옛날집이란 한옥형태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말하는데 한옥식 구옥이라고도 부르며, 같은 단독주택 유형이더라도 당간부나 복송교포들이 거주하는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집은 독집이라고 한다. 그러나 옛날집, 독집 등의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1가구가 단독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그러한 사실은 탈북인이 설명하는 다음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지금 자체로는 단독이라 하면 거의 두 세대가 사는 집을 말한다. 그러나, 구역 간부들 일부와 당 간부들 그런 사람들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산다.'

연립주택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여러 가구의 문이 다닥다닥 연속되어 있는 하모니카집이고, 다른 하나는 4-8 세대를 2줄로 붙여지며 외관이 상당히 커 보이는 땅집이다. 탈북인 H씨는 하모니카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북한에는 부엌 하나 방 하나만 있는 집이 15-20m 정도 길게 붙어 있는데, 문 있고 방 있고.. 복도도 없으며 문열면 방 보이고, 문열면 방 보이는 집으로 꼭 하모니카처럼 생긴 집이다.' 남한에서 한 때 아파트에 대비되는 뜻으로 단독주택을 땅집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땅집이라는 용어가 원래 있었다고 한다. 북한의 땅집은 한 가구가 거주하도록 지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적게는 4세대, 많게는 8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도록 지은 일종의 공동주택이다. 땅집에 몇 가구가 사는지는 굴뚝의 수를 세어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가구마다 부엌 하나에 방이 하나이지만 간혹 방이 두 개인 경우도 있다(J씨)고 한다. 탈북인 A씨는, '결혼 전에는 아파트에서 살았다. 결혼 후에는 땅집에서 살았는데 4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게 되어졌는데 집마다 방 1칸에 부엌이 있으며 뒷집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린다. 북한에서 독채 사는 집은 간부집 밖에 없다.'라고 땅집에서의 거주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밖에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까지 농촌이나 지방도시에 2-4세대용으로 지은 2층 짜리 문화주택이 있다(J씨, C씨)고 한다.

아파트는 북한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공동주택이지만 주거설비 수준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사기변기(수세식 화장실을 일컫는 북한 용어)에 온수가 공급되는 최고급 아파트부터 수도물도 안 나오고 개별변소 없어서 25가구당 1개가 배당되는 폐내기식 공동변소를 사용해야 하는 아파트까지 그 수준이 다양하다. 이는 '도소재 지급 도시 중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수세식화 되어 있으나 온수난방화는 평양시 하나만 되어 있다. 대부분은 찬물만 나오는데 그게 최고급 수준이다. 나머지는 다 시간물(시간제 급수)이며 폐내기식 공동변소이다.' 라는 탈북자(J씨)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의 층수는 5층부터 20층까지 그 높이가 다양한데 1층은 상점이고 2층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형 아파트가 각 도마다 하나 정도씩 있는 것(B씨)으로 밝혀졌다. 아파트 중에서 주로 노동자와 사무원이 거주하는 편복도식 아파트는 복도를 따라가며 출입문이 जु지어 있어서 하모니카 아파트라고 하는데, 한 동은 80-100세대로 구성되며 각 집의 크기는 7-9평이고 내부는 방 하나와 부엌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한다

특기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 언급한 주택유형에 속하지 않는 곳에서 거주한 경험(복수응답)이 있다고 응답한 탈북인이 47명 있었는데, 이들이 거주했던 곳은 군복무 기간 중에 기거했던 군병영, 직장에 속해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강제추방을 당하여 거주했던 성냥곽집, 반토굴식집, 통나무귀틀집인 것으로 밝혀졌다.

2) 거주기간

주택유형에 따른 거주기간(복수응답)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14.5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다음으로 독집 13.9년, 옛날집 12.7년, 연립주택 10.5년으로 밝혀졌다(표1 참조). 주택이 아닌 군병영, 합숙소, 성냥곽집 등에서의 거주기간은 대부분(96.2%)이 10년 이하이었으나 일부 탈북인(3.8%)은 11-20년간 거주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거주기간은 주택유형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택당 거주기간의 평균은 13.2년으로, 남한과 비교하면 매우 길었다. 남한의 경우 주택을 자가와 차

가로 구분하여 거주기간을 비교한 연구(국토개발연구원, 1990)에서 자가세대의 경우는 4.5년, 차가세대의 경우는 1.5년이었으며, 도시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김대년, 1993)에서 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평균 7.0년이였다. 이들 연구결과를 북한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주택별 거주기간에 있어서 남북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주민의 주택당 거주기간이 남한보다 긴 것은 주거이동 횟수가 적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의 후반부인 주거행동에서 다루고자 한다.

〈표 1〉 주택유형별 거주기간

(빈도: %)

주택 유형 기간	독집	옛날집	연립주택	아파트	계
10년이하	28(45.7)	10(52.6)	32(61.5)	45(47.4)	115(50.9)
11- 20년	19(31.7)	7(36.8)	13(25.0)	30(31.6)	69(30.5)
21년이상	13(21.7)	2(10.5)	7(13.5)	20(21.1)	42(18.6)
계	60(26.5)	19(8.4)	52(23.0)	95(42.0)	226(100.0)
평균(년)	13.9	12.7	10.5	14.5	13.2

3) 주거공간의 구성

북한의 주거공간은 그 구성이 매우 단순하다. 연구 결과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주거규모가 적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방, 부엌 이외의 다른 공간이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탈북인이 북한에서 거주했던 주택의 규모를 보면, 10평 이하 10.7%, 11-20평 37.3%, 21-30평 24.9%, 31평 이상 28.0%로 48.0%가 20평 이하의 주택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주거규모는 25.9평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서 조사대상자 중 일부는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했던 주택의 규모가 평균값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탈북인 C씨가 면접조사에서 ‘우리 집은 8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었으며 방은 7개이었다.’고 증언한 것은 위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방수는 2개가 51.0%로 가장 많고, 1개 14.0%, 3개 23.6%, 4개 이상 11.5%로 나타나 65.0%가 방이 2개 이하인 주택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류층 주택에서 생활하였던 탈북인이 있었던 까닭으로 평균 방수는 2.4개이었다. 따라서 주거규모나 방수에서는 평균치보다는 빈도에 의미를 두어 북한 주택을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북한은 방수가 규정되어 있다. 좋다고 하는 아파트는 다 2칸이다. 그러나 동거살이 하면 1칸을 쓰기 때문에 최우간 방이 2칸 있으면 사람들은 만족해 한다.’고 설명한 탈북인의 증언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주거공간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택 내에 방과 부엌이외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방과 부엌이외의 다른 공간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0.4%이었다. 방과 부엌이외에 많이 있는 공간으로 밝혀진 것은 창고(73.2%)이었으며 다음이 변소(50.3%)로 나타났다. 집안에 변소가 없는 경우에는 퍼내기식 공동변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 주택에 세면장이 있는 경우는 43.3%이었으며 다음으로 베란다(14.4%), 욕실(29.3%), 전실(22.9%), 다락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에 있는 일반주택의 공간구성을 탈북인 B씨와 E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마가 걸려 있고 그 옆에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데 여기가 부엌도 되고 방도 된다. 방에 칸막이를 하면 옷방, 아랫방이 되는데 옷방 끝에 굴뚝이 있다. 방은 막아서 2칸일 뿐이지 남한의 방으로 치면 1칸인 셈이다.’ 여기에서 주택내부에는 방과 부엌뿐이며 방과 부엌도 사실은 사이에 벽이 없이 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 바닥높이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아이들이 부엌 가마에 빠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방과 부엌사이를 막기도 하는데, 새로 짓는 집은 벽을 설치하는 경향이라고 한다(E씨). 탈북인 G씨는 자신의 주거경험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결혼 전에 두 칸 짜리 아파트에서 여섯 식구(본인,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 형, 형수, 조카)가 살았고 결혼 후 1년은 같은 집에서 그냥 살아서

너무 복잡했다. 그러다가 설계사업소 소장의 뱃으로 사무소의 반 칸을 얻어 반으로 갈라 방 하나와 부엌을 만들어 1년을 살다가 나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처는 처가집으로 갔다. 집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집을 공급한다는 게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다.' 이와 같은 증언에서 결혼하면 입사증과 함께 집을 배정받는다든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의 공간구성을 보면, '아파트는 방이 2개, 부엌, 화장실이 있고, 응접실은 없다. 80년대 이후 평양에 지은 아파트에는 응접실(거실이란 명칭을 잘 안 쓴다고 함)이 있게 지었다(C씨).'고 하여 일반 주택보다 수준이 높은 아파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변소가 집안에 없기 때문에 아침이면 대단히 번거롭다고 하는데, 탈북할 때 가장 두려웠던 점이 '밤에 불일 보려고 공동변소를 가는 주민들에게 발각되는 것이었다.'고 한 탈북인 H씨의 증언에서도 개별 변소가 없어서 불편하게 생활하는 주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탈북인 G씨는, '여기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듯이 북한 아파트 앞에는 두줄로 집 호수만큼 창고를 만들어 구멍탄을 넣고 겨울에는 김치를 묻곤 한다. 70년대 중반부터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창고 안쪽에 돼지를 키우는데 그 배설물을 버릴 때가 없어서 밤에 하수도에다 퍼 넣는데...'라고 설명하여 옥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엌 한쪽에 창고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힘있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재를 구하기가 어렵다(C씨)고 한다.

탈북인 B씨에 의하면, '빨래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말린다. 베란다 꼭대기에 빨래를 쪽 넣어놓으면 동당비서나 동 사무장들이 와서 외국인이 지나가다 보면 좋지 않다고 넣어놓은 빨래를 치우라고 한다. 그러면 베란다 턱과 창문 턱에 나무막대를 낮게 걸쳐 놓고 말린다. 방안에서 빨래를 말리기도 한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주거용어를 보면, 남한의 거실에 해당되는 공간을 응접실이라고 부르고, 현관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전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전실은 출입문 가까이 있는 방으로 전실

이 있는 집은 아주 좋은 집'이라고 한다. 또, 북한에서는 외국어 특히 영어로 된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아파트'와 '베란다' 라는 외국어 명칭은 그대로 통용된다(C씨)고 한다.

이로써 북한의 주택은 방, 부엌, 창고, 변소, 베란다(아파트인 경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욕실, 전실 등이 추가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4) 주택의 마감재료

① 마감재료의 수급상황

북한에서는 모든 물자가 부족하지만 특히, 주택관련 자재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이 없거나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주택자재를 입수하기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주택의 마감재료는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나 주거실태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C씨) 한다.

'벽이나 천장에 바르는 종이를 개인이 판매하기도 하지만 구하기 힘들고 비싸기 때문에 공장에서 뒤로 빼낸 종이에 문양을 찍어 이용한다.' '유리창이 깨지면 구할 수가 없어서 종이나 비닐 등으로 창을 막고 생활하는 일이 흔하다.' '집에 거울이 없는 경우가 많다.' '화학산업이 발달되지 않아 플라스틱 제품이 귀하다.' '우리는 구하기도 어렵지만 어렵게 구한 유리도 면이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라는 등의 탈북인들(D씨, J씨, A씨)의 증언에서도 주택자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혼한 후 5년 동안 도배를 2번, 장판을 1번 하였다는 탈북인 B씨는 자신의 생활수준은 높은 편이었다고 하면서 '도배는 시누이가 평양 3만세대 건설에 동원되었다가 얻어 온 비닐벽지로 했는데, 먼지가 오르면 닦고 하면서 탈북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하였다. 이런 비닐벽지는 지방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것이다. 바닥에는 포장지로 사용하는 누런 색의 두꺼운 종이를 바르고 거기다가 노란 도료를 칠하고 다음에 니스를 칠하는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들여 온 레자(비닐장판)를 많이 쓴다. 잘 사는 집은 레자까지는 일부러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도배와 장판을 자주 한 이유는 '구공탄의 질이 떨어져 연기가 많이 나서

1년만 지나도 더러워지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페인트는 마감재료로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 D씨가 증언한, '뽕겨(페인트)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 뽕지풀(우편국에 가면 있다고 하는 북한 풀)에 안료를 섞어서 칠하면 한두번 비를 맞아도 괜찮다. 위생검열 나오면 걸리니까 임시라도 그렇게 칠해 놓는다.'라는 내용에서 페인트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탈복하기 전에 거주했던 주택을 대상으로 방과 부엌의 마감재료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2 참조). 방과 부엌만을 조사한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 주택의 공간구성이 단순하여서 방과 부엌이 가장 일반적으로 구비된 공간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② 방의 마감재료

방바닥의 마감으로는 종이 또는 장판지가 50.0%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다음이 시멘트몰탈 마감(28.5%), 비닐장판 마감(12.0%)으로 나타났다. 종이로는 시멘트 푸대용 갈색 포장지가 많이 이용되는데 마감 후에는 노란색 페인트나 니스를 바른다고 한다(B씨). 벽의 마감재료로는 종이나 벽지(48.1%), 시멘트몰탈(17.7%)이 많았으며, 그밖에 비닐벽지(8.2%), 회칠마감(5.1%), 블록이나 벽돌(5.1%)도 있었다.

천장 역시 종이 또는 천장지가 61.4%로 가장 많이 이용되며, 목재, 시멘트몰탈, 회칠 등이 각각 5-9% 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방바닥은 종이나 장판지로 마감하고, 벽에는 종이를 바르거나 헛가루칠을 하는데 일부 계층에서는 비닐벽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방의 천장은 종이로 마감한다'라고 한 탈북인의 면접결과와 일치하였다. 또, 앞에서 기술한 탈북인 B씨의 증언과 함께 '벽에 비닐 벽지를 바르고 방바닥에 비닐장판을 깔면 집을 아주 잘 치장하는 것이다. 그런 재료들은 중국이 개방된 후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으며 그렇게 치장한 집이 꽤 있다.'고 하는 탈북인 H씨의 증언에서 비닐장판이나 비닐벽지가 북한 주택의 실내 마감재료로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방바닥에 비닐장판을 까는 경우 탄불을 때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차서 불편하다고 한다(G씨).

〈표 2〉 방과 부엌의 마감재료

공간	구분	마감재료	빈도	%
방	바닥	종이/장판지	79	50.0
		시멘트몰탈	45	28.5
		비닐장판(레자)	19	12.0
		기타	15	9.5
		전 체	158	100.0
	벽	종이/벽지	76	48.1
		시멘트몰탈	28	17.7
		비닐벽지	13	8.2
		회칠	8	5.1
		블럭/벽돌	8	5.1
		기타	25	15.9
	전 체	158	100.0	
	천장	종이/천장지	97	61.4
		시멘트몰탈	14	8.9
		목재	9	5.7
회칠		8	5.1	
기타		30	19.0	
전 체	158	100.0		
부엌	바닥	시멘트	79	50.0
		타일	20	12.7
		비닐장판(레자)	19	12.0
		마루	14	8.9
		흙	8	5.1
		기타	18	11.4
	전 체	158	100.0	
	벽	회칠	41	25.9
		시멘트몰탈	40	25.3
		종이/벽지	19	12.0
		블럭/벽돌	10	6.3
		타일	8	5.1
		흙	7	4.4
		기타	33	25.3
	전 체	158	100.0	
	천장	회칠	31	19.6
		나무/판자	30	19.0
		종이/천장지	30	19.0
시멘트몰탈		21	13.3	
페인트		7	4.4	
기타		39	24.6	
전 체	158	100.0		

③ 부엌의 마감재료

부엌 바닥의 마감재료로는 시멘트(50.0%)가 가장 많았으며, 타일(12.7%)과 비닐장판(12.0%)은 비슷하였고 다음으로 마루, 흙바닥의 순이었다. 벽의 마감재료는 회칠(25.9%)과 시멘트몰탈(25.3%)이 많았다. 천장에는 회칠(19.6%), 나무/판자(19.0%), 종이/천장지(19.0%)의 3가지 마감재료가 비슷한 비율로 이용되었으며 시멘트몰탈(13.3%)이 그 다음으로 이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탈북인 H씨가 '부엌 바닥은 대부분 시멘트로 되어 있으나 타일도 이용된다.' 라고 증언한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실내마감 재료 이외에 지붕의 재료를 보면 기와가 6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콘크리트 슬라브 10.8%이었다. 또, 북한에서 좋은 집이란 시멘트로 지은 집을, 나쁜 집이란 흙집(토담집)을 말한다든 탈북인 J씨의 증언에서 주택재료는 북한의 주거수준을 알 수 있는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5) 주거설비 수준

북한 주민의 주거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급배수설비, 난방방식, 가사작업공간과 생리위생공간을 중심으로 주거설비 수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급배수설비

북한 주택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주거설비의 미흡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 급배수설비가 되어 있는 주택은 82.1%로 비교적 그 비율이 높았다. 급배수설비가 미비한 집의 유형은 집안에 수도와 하수도가 없는 집(7.7%), 수도는 없으나 하수도가 있는 집(5.8%), 수도는 있으나 하수도가 없는 집(1.3%) 등 다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은 1975년에 수도화를 완성했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실용화는 아직 멀었다. 먹는 물 공급은 80%정도 되어 있다.'고 설명한 탈북인 E씨의 증언과 거의 일치하였다.

이러한 급배수설비의 보급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시간물(시간제 급수라는 북한 용어)이거나 빈번하게 단수되는 등 급수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과 온수 사용은 불가능하고 냉수만 공

급된다는 것이었다. 탈북인 H씨는 '15층짜리 아파트에 살 때는 물을 옥상에 저장했다가 내려 보내서 물이 계속 나왔다. 5층 아파트에 살 때는 아침, 점심, 저녁 한시간씩 물이 나왔다. 시간이 지나면 안 나와서 집에 있는 물탱크에 받아 놓고 썼다. 전기가 끊어지면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북한에서 아파트 4층에 살았다고 하는 B씨는 '수압이 낮아서 물이 3층까지만 나오고 4층과 5층은 안 나와서 아랫집에 가서 길어다 썼다'고 설명하고, G씨는 '아파트 3층에서 살았는데 집집마다 수동식 펌프가 있었다. 물이 안 나와서 개인이 설치한 것인데 아래층 수도관에 연결해서 썼다. 낮에는 물이 안 올라와 밤에나 쓸 수 있다. 전에는 물이 나왔는데 81년쯤부터 수압이 떨어져 물이 안 나온다.'고 증언하여서 북한의 급수사정이 점차 나빠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요약하면, 북한 주택에서 급배수설비의 보급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심하고 급수사정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② 난방방식

설문조사 결과, 난방연료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석탄/갈탄/무연탄(63.2%)이며 다음이 나무/벼짚(20.1%)이었다. 탈북인의 16.7%는 중앙난방이 되는 주택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 및 면접조사 결과, 북한 주택의 난방은 대부분 재래식 온돌에 의존하며 연료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양도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탈북인 C씨는 '일반은 다 석탄 아니면 나무를 땀다. 갈탄도 많이 때는데, 평양에서는 동머리탄이라 한다. 군용탄(구멍탄)은 도시의 아파트 같은 데서는 때도 어느 지방에서는 구하기 어렵다.' '구멍탄은 석탄가루를 배급받다가 각자 집에서 적어 쓰는데 질이 나빠서 하루에 서너장씩 갈아야 한다. 10층이 넘는 아파트도 구멍탄이나 나무를 지어 때고 올라가야 하고 사용 후에는 재를 지고 내려와야 하므로 힘이 많이 든다.'고 증언하면서 '그러나, 남한과는 달리 쓰레기라고는 석탄재밖에 없다. 재도 모아 두었다가 채로 쳐서 밭에 뿌리거나 퇴비를 만드는데 이용한다.'고 하였다. B씨는 '난방은 아파트도 단층집과 똑 같

아서 집집마다 굴뚝이 건물 한쪽 구석에 붙어 있다. 아파트는 막탄 때는 집도 있고, 균용탄 때는 집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탈북인 B씨는 '회령에서는 덩어리와 가루가 섞여있는 갈탄을 난방과 취사연료로 사용하는데 나무에 먼저 불을 지피고 그 위에 갈탄을 삼으로 얹어 놓아서 밤도 하고 난방도 하였다.' '갈탄의 질이 좋지 않아서 불을 한번 붙이기도 힘들고 밥을 한 번 하고 나면 불이 꺼져버려서 다시 피워야 하는 게 불편하였다.'고 하여 난방과 취사에 고충이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난방연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다음의 증언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탈북인 H씨는 '갈탄공급이 잘 안 되어 탄광사람들이 몰래 차에다 싣고 도시에 내려와 비싸게 파는 것을 사서 썼다'고 하였으며, B씨는 결혼하기 전에는 6명의 식구가 옷방과 아랫방이 있는 땅집에서 살았는데 겨울에는 옷방이 너무 추워서 모두 아랫방에서 잤으며, 결혼 후에는 방 2칸짜리 아파트에서 시부모, 시동생, 시누이, 웅답자부부 모두 6명이 살았는데 겨울에는 역시 온 식구가 아랫방에 잤다고 설명하였다. 연료부족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E씨의 증언, 즉 '겨울에 방 온도가 19도도 안 되어 옷을 꺼입고 덜덜 떨면서 지냈다. 석탄공급이 안되면 다섯 집이 각 집에서 석탄을 들고 와서 한 집에 모여 산다'라는 내용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평양시 중심가나 안주시 같은 도소재지급 도시 중 일부 아파트는 중앙난방으로 온수가 공급된다.'라고 설명한 E씨의 증언에서 난방이 잘 되는 아파트에서 사는 주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난방연료를 일컫는 용어는 탈북인마다 달랐는데 정리해 보면 갈탄, 막탄, 석탄, 썩탄 등은 가루 또는 덩어리 상태이고, 균용탄, 구멍탄, 연탄은 기계로 찍어서 구멍이 뚫려 있는 원통 형태의 연료임을 알 수 있다. 기계로 찍은 상태로 배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막탄이나 갈탄을 배급받는 건 나은 편이다. 농촌에서는 나무나 벚짚 등으로 연료를 자체 해결해야 한다.'고 탈북인 E씨는 설명하였다.

이로써 북한의 난방방식은 주로 재래식 온들에 의존하며, 연료공급에 있어서 주민의 필요량을 충족시

키지 못하고, 연료를 가루나 덩어리 상태로 배급하므로 집집마다 기계로 찍어서 날라야 하는 등 가사작업이 부담스러우며, 그 질이 매우 떨어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③ 가사작업공간

가사작업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리작업과 세탁작업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설비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주민은 주로 부엌 부뚜막(50.3%)에서 조리를 하며, 다음으로는 간이작업대(26.5%), 입식작업대(15.2%), 부엌바닥이나 방바닥(7.9%)에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에너지 절약이나 수납공간 확보를 위한 부엌의 입식화가 요원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취사연료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난방연료와 같은 석탄/갈탄(57.9%)이었으며, 나무(31.6%), 석유/가스(10.5%)의 순으로 나타나 남한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엌의 내부구조에 대하여 탈북인 H씨는, '아파트 부엌에 들어가면 탄을 때는 아궁이가 있는데 거기에 가마를 두 개 건다. 그 옆에는 반드시 수도, 하수도가 있다. 시멘트로 식탁처럼 만든 단은 조리하는 장소도 되고 식장(찬장)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 C씨는 '부엌 부뚜막에 가마걸고, 수도 내려가게 하고 거기에서 밥을 했다. 그러나, 평양의 창광거리에 있는 중앙고위층 아파트에는 싱크대, 가스렌지가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도시같은 데서는 석유콘로를 쓰는데 기름이 귀해서 여느 집에서는 못 쓴다.'고 하였고, J씨는 '전기가 부족하여 복숭고포들이 가져 온 전기밥통은 사용을 금지하였다. 대신에 1달에 1번 프로판가스를 지급하는데(평양 소재 아파트의 경우) 20일 쓰고 나면 바닥이 난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에서 아침밥을 지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H씨와 B씨가 설명하는 다음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밥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탄불의 질에 달려 있다. 탄불이 빨리 붙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야 한다. 부뚜막에 가마가 2개 있지만 연료가 부족하여 한쪽만 피우기 때문에 한 쪽에서 물을 끓여 다른 가마에 옮겨 놓고, 불 있는 쪽에서 다시 밥을 지어야 한다. 빨리 해도 2시간은 걸

리는데 그 이유는 불이 하나뿐이기도 하지만 옥수수 쌀이라 깔깔해서 한번 끓이고 나서 다시 한번 밥물을 없어서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그렇다.' '한끼에 갈탄 한 바께쓰씩 창고에서 나르고 다시 재를 내다 버리는 일이 매우 힘들었다.'고 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취사작업의 고충을 설명하였다.

이것으로써 북한에서는 부엌 부뚜막이 일반적인 조리장소이지만 입식작업대가 일부 도입되고 있고, 취사연료로는 갈탄, 연탄 등이 주로 이용되지만 기름, 가스, 전기도 제한적이거나 사용되고 있으며 취사작업이 고된 작업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불행하게 느끼지 않았다고 하여 주거규범 자체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에서는 주부의 가사작업량 감소에 효과적인 세탁기나 식용저장용 냉장고의 보급이 라디오, TV, 재봉틀 등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B씨는 '집에 냉장고가 있으면 장사밀천이 된다. 빈 맥주깡통을 잘라서 삭카린 물을 부어 얼려서 내다 팔면 장사가 아주 잘 된다.'고 증언하여 냉장고를 소유한 가정이 많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또, 외국에 있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여유있게 살았다고 하는 A씨는 '세탁기가 있는 집은 거의 없다. 회령시 전체에 한 두집 있는 정도이다. 빨래는 다 손으로 하는데 비누가 없어서 조금씩 문히면서 한다. 와이셔츠같은 것은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나 입는다. 보통은 칫칙한 옷을 입으니까 매일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세탁작업의 어려움을 설명하였다. 또, '비누가 매우 귀하다(H씨)', '빨래는 다 집에서 한다. 세탁기는 일반인은 구경하기 힘들다. 도소 재지급 도시에는 화학빨래집(세탁소)이 있으나 지방에는 없다(C씨)', '우리집에는 컬러 TV, 라디오, 재봉틀, 사진기 등이 다 있었지만, 세탁기와 냉장고는 없었다(I씨)' 라는 탈북인들의 증언에서도 세탁을 위한 세제나 세탁기 등의 보급이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④ 생리위생공간

북한 주택에는 화장실 겸 욕실공간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변소와 욕실로 구분하여 알아보았

다.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변소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그 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폐대기식 공동변소 이용이 3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폐대기식 개별변소(22.3%), 사기변기(수세식화장실이라는 북한 용어)가 있고 목욕이 가능한 공간(21.6%), 사기변기만 있는 변소(1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북한에는 개별변소가 없어서 공동변소를 이용하는 주민부터 욕실 겸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까지 있어서 그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기변기가 있어도 24시간 물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께스에 물을 받아 두었다가 사용한다.'는 탈북인 B씨의 설명에서 급수사정이 나빠서 수세식화장실이 있어도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개별변소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 외에 공동변소의 위생문제가 지적되는데 탈북인 G씨의 증언인, '공동변소 한쪽에는 인분비료를 만든다고 웅덩이를 파 놓았는데 밤에 빠지기 쉽고 악취가 풍기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더럽다. 여름철에는 높은 사람들이 인분을 다 퍼가지고 가서 그것도 없어서 야단이다.'에서 확인된다.

아파트 1층에 살았던 D씨는 남자칸 2개와 여자칸 6개가 있는 공동변소를 아파트 2동 주민(1동에 80세대 거주)이 공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아침이면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집 한쪽에 붙여서 변소를 만들었다고 한다.

북한 주민의 욕실설비 수준과 목욕행위는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결과, 욕실이 없는 집이 51.0%이었으며 욕실은 있으나 온수공급이 안 되는 집 32.4%, 욕실에 온수공급이 되는 집 14.5%로 밝혀졌다. 욕실 유무에 관계없이 목욕하는 장소를 보면, 공동목욕탕(39.2%), 집에서 합지목욕(32.9%), 집에 있는 욕실(28.0%)의 순으로 나타났다.

목욕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함경북도에서 살았던 B씨는 '3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가는 큰 쇠가마 3개를 걸어 놓고 한쪽 가마는 물을 계속 채워서 따뜻하게 만들고 한 가마는 밥을 하고 또다른 가마는 반찬이나 국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 물로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였다고 설명하였으며, 탈북인

H씨는 '내가 살던 집에는 욕실이 없었다. 구역에 간 이시절로 한 사람씩 목욕하는 공동목욕탕이 하나 있었다. 막탄을 때서 물을 데우는데 연료가 부족하여 10시에 문 열면 1시까지 가기도 바쁘다. 그 시간쯤에는 목욕탕 앞이 터질 정도라 웬만하면 집에서 한다. 노인들은 그렇게 하기도 힘드니까 겨우 내내 그냥 있다가... 찬물에 들어가 목욕할 수 있을 때 한다. 그래서 호미로 때를 긁는다는 말이 나왔다'고 증언하였고, C씨는 '남한에 와서 보니 남북한의 공동목욕탕이 비슷한데 북한에는 더운물 공급시간이 제한되어 있는게 다르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집에서 비닐주머니를 이용하여 목욕(북한에서는 함지목욕이라고 함)하였다는 북송교포 D씨는 '북한의 목욕탕은 진짜 큰일이다. 일본에서 목욕을 자주 하고 살았기 때문에 더 불편하게 느꼈다. 신의주에 오는 중국 보따리 장사에게 산 비닐주머니에 풀린 물을 바게쓰 2개 정도 붓고 손으로 잡고 있으면 주머니가 확 불어나면서 뜨거운 증기가 잠시 오른다. 그 속에 들어가면 사우나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찬물을 조금 타서 씻는다.'고 하였다.

이로써 북한에는 욕실공간이 없는 집이 반 정도이고, 목욕은 공동목욕탕이나 집에서 하는데 지역마다 있는 공동목욕탕은 규모와 수준에서 차이가 나거나 연료가 부족한 탓으로 사용상 불편함을 겪는다고 요약할 수 있다.

6) 주택의 입주제도와 주거비

지금까지 언급한 주거생활에서의 남북한간의 이질화 현상이 주로 북한 사회의 경제적 궁핍에 기인한 것이었다면 주택의 입주제도와 주거비 부담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이질화는 상반된 사회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입주제도, 입사증의 발급, 주거비에 대한 북한의 실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제도에 의하면, 결혼등록을 하고 주택을 신청하면 입사증을 발급해 주게(내외통신, 1994) 되어 있는데 입사증을 발급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 일정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설문조사 대상자인 158명의 탈북인 중에서

59.6%만이 입사증으로 배정된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입사증 배정이 아닌 집으로는 부모소유의 개인집(32.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가 배정받은 집(24.6%), 돈을 주고 산 집(23.0%), 자기가 지은 집(11.5%), 물건과 교환한 집(4.9%)이 있었다.

면접조사에서 탈북인 H씨는 '결혼하고 나서 부모가 배정받은 집에서 살았는데 방이 2개라서 부부가 따로 쓸 방이 없었다.'고 하면서 결혼 후에 입사증을 받지 못하여 불편했다고 증언하였다. 또, C씨의 설명에 의하면, '북한의 모든 집은 나라집이기 때문에 입사증 없이는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도시경영과 직원이 때 준 동거입사증을 가진 사람이 오면 우리 가족이 쓰던 방을 하나 내 주어야 한다.'라고 증언하면서 지방에는 동거살이가 거의 없지만 도시 특히, 평양시에는 동거살이가 많다고 하였다. 탈북인 G씨는 당 책임비서 정도의 신분이라면 결혼하고 녀달 만에 방 두 칸짜리 집을 받기도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은 10년이 넘어도 동거살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에서는 22.1%가 동거입사증을 받아 동거살이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입사증을 발급받은 계기는 설문조사 결과, 직장관계가 가장 많았으며(29.9%), 혼인·분가(28.2%), 돈주고 구입(6.8%), 부모에게 물려받기(6.0%), 집 교환시 받기, 개인적으로 짓고 받기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돈주고 개인집을 사서 입사증이 필요 없다(5.1%)고 한 경우도 있었다. 입사증을 발급받은 계기(개방형 질문)를 보면, '직장관계로 공장에서 받았다' '외화벌이 표창으로 배정받았다' '김정일이 선물로 하사하였다' '부모집에서 새간나면서 받았다' '결혼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안면관계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 '웁길 때마다 시아버지 뱃으로 받았다' '돈을 주고 샀다'고 하여 입사증이 불법적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으면서 입사증을 받았다' '본인의 힘으로 집을 짓고 받았다' '집을 사고 난 후 때앗길까 봐 입사증을 발급받아 놓았다'는 증언에서 집을 어떻게 마련하였건 간에 입사증을 발급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주택은 국가소유이고 개인에 의한 주택건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1)는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며, 입사증은 주택입주를 위한 증서로서 중요하나 주택소유권을 인정하는 증서의 의미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는 개인이 사용한 물이나 전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거관리비라는 개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인 C씨는 '북한에는 주택사용료라는 것이 있으나 한 분기에 12전 정도로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탈북한 사람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I씨는 '북한에서는 전기나 물을 많이 써도 적게 써도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낸다. 절약에 관한 것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여 북한 생활에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었음을 시사하였다.

3. 북한 주민의 주거만족·불만족과 주거행동

주어진 주거상황과 주거규범간의 불균형으로 생긴 주거결함은 주거불만족의 원인이 되며, 주거불만족으로 유발된 주거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주거행동을 하게 된다. 주거조절 행동은 적극적인 대처방법인 주거조정과 소극적인 대처방법인 주거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 주민의 주거행동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거불만족과 주거개선

탈북인 E씨와 I씨에 의하면, 북한에서 좋은 집이란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 있는 집, 흙집이 아닌 시멘트집, 부식용 채소가 공급될 수 있는 '부엌밭'이 있는 집, 방이 많은 집을 일컫는다. 그러나, 거주지역이 같은 경우 집의 외관을 보고 부(富)의 정도를 알기는 쉽지 않으며, 잘 사는지의 여부는 해외에 친척이 있는지, TV, 옷장, 이불장, 냉장고, 세탁기가 있는지 등으로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한다(B씨).

설문조사 결과, 북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특성의 순위는 주택설비> 거주지역> 방의 수> 주거규모> 주택소유> 주택유형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남한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특성이 주

택소유라는 사실과 대조적이다. 또, 탈북인의 대부분(89.3%)이 주택을 '가족의 생활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재산과 부의 표현수단(6.4%), 사회적 지위의 표현수단(2.9%), 개인의 휴식처(1.4%)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에서의 주거생활 만족도를 보면, 만족하지도 불만족하지도 않은 경우가 54.5%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불만족이 35.7%, 만족이 9.7%로 나타났다. 북한의 주거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불만족의 비율이 적은 것은 불만족을 유발할 만한 비교대상이 없고 이에 따라 주거규범 자체가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택에 대한 불평은 많았지만 적당하게 살았다.' '각 집이 똑같기 때문에 불편한 것을 잘 몰랐다.'라는 탈북인 H씨, J씨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주거불만족의 가장 큰 요인은 난방·취사연료의 양이 부족하고 질이 낮다는 것(27.0%)이었으며, 다음은 급배수시설의 미비와 시간물(13.8%) -> 방수와 주거규모의 불충분(10.4%) -> 거주지역의 조건 미흡(9.8%) -> 욕실이 없음(8.6%) -> 공동변소의 부족과 낙후된 시설(8.0%) -> 자재부족으로 집수리 곤란(7.5%) -> 전기공급 불량(5.8%) 등의 순으로 밝혀졌는데, 이들 요인의 공통점은 주거설비와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것이었다. 개방형 질문에서 밝혀진 주거불만족의 구체적 내용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주거개선에 대한 희망을 보면, 난방·취사연료의 개선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장판지와 벽지 교체(20.4%), 노후부분 수리(16.6%), 온수설비 마련(12.3%), 세면장(욕실) 설치(6.8%), 상하수도 설치(6.0%), 개별변소의 마련 또는 개량(사기변소 설치), 방 넓히기 또는 방수 늘리기의 순이었다. 탈북인 J씨와 C씨의 증언 즉, '장판지와 벽지를 자주 바꾸어야 한다. 연료의 질이 나빠서 연기가 많이 나서 실내가 시커멓게 되기 때문이다.'는 내용으로 보아서 장판지, 벽지의 교체가 연료의 질과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북한 주민의 주거불만족을 해결하고 주거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난방 및 취사연료의 공급을 늘리고 질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표 3〉 북한 주민의 주거불만족의 사례

주거불만족의 사례	불만요인
아파트에서 살 때 겨울에 난방이 보장되지 않아서 추웠다.	주거설비
아침밥 지을 때와 퇴근 후에 탄불이 죽어 너무 속상했다.	주거설비
수도가 얼어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	주거설비
잡은 정전과 수도물 단수가 불편했다.	주거설비
방이 부족하여 부부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주거규모
아파트 주변 길이 비포장이어서 비가 오면 다니기가 어려웠다.	거주지역
아파트에 변소도 욕실도 없었다.	주거설비
변소 푸기가 힘들었다.	주거설비
유리창이 깨져도 유리도 종이도 없었다.	주택자재
구멍탄 찍는 것, 바게스 가지고 밑에 까지 가서 물 길어 오는 것이 힘든 일이었다.	주거설비
석탄, 재, 오물 등을 나르기 위해서 아파트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다.	주거설비
런립주택 땀따기(골조)만 세워주고 온돌, 부엌까지 자체적으로 꾸려야 했으므로 힘들었다.	주택자재

과제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상하수도 설비를 완비하고 급수량을 늘려야 하며, 주택내에 변소와 욕실을 설치하고 주택개보수를 위한 자재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제반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거규모의 확대와 가족수에 맞도록 방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주거조정과 주거적응

주거불만족으로 인한 주거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주거행동(housing behavior)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주어진 주거상황을 바꾸어 불만을 해소하는 적극적 대처방법인 주거조정 행동(housing adjustment behavior)으로 주거이동이나 주거증개축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규범이나 가족상황 등 주거 이외의 조건을 바꾸어 해결하는 소극적 대처방법인 주거적응 행동(housing adaptation behavior)으로 규범적 적응이나 구조적 적응이 이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주거행동 유형을 분석해 보고 그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결과, 북한에서는 주거조정 행동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주거이동은 5.4%로 매우 낮은 반면에 주택의 노후부분 수리, 상하수도 설치, 울타

리 만들기 등의 주거개보수는 54.5%로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의 주거행동 패턴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주거이동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직장이동이 가장 많았으며(37.3%), 다음이 추방·소개·강제철거에 의한 이동(18.4%)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동의 60% 정도가 자발적 이동이 아닌 사회제도에 의한 이동이나 강제적 이동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예로서 ‘성분차별로 탄광으로 이사했다.’ ‘평양에서 살다가 강제 이주 당했다.’ ‘국가적 조치로 인하여 2번 이사했다.’ 등을 들 수 있다. 그 이외의 주거이동 사유는 결혼·분가(12.0%), 상향이동(10.8%), 동거살이 탈피(4.4%) 등이었다.

탈북인의 주거이동 횟수를 보면, 1-2회가 50.0%로 가장 많았다. 주거이동 횟수가 적은 이유는 사회적 제약에 의한 자발적 주거이동의 어려움이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일반 주민은 한 번 국가에서 주택공급을 받으면 특별한 수완 없이는 영원히 거주해야 한다.’ ‘당에서 배치해 준 직장으로 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사를 가는 건 불가능하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어렵다.’ ‘6살 때부터 결혼할 때(26살)까지 한 집에서 살았다. 나쁜 아니라 다들 그렇다.’라고 한 탈북인들(C씨, I씨, B씨)의 응답에서도 확인된다. 탈북인

〈표 4〉 북한 주민의 주거행동 유형별 사례

행동 유형		구체적인 행동 사례
주거조정 행동	주거이동	재외생활 동안 구입한 냉장고 2대를 주고 집을 구했다.
		자전거를 리용하여 집을 이사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옷돈을 받고 집을 옮겼다.
		살림집 부족으로 동거살이하다가 짐배정을 받고 이사했다.
	주거개보수	겨울에는 방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그 안에서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막아보려고 했다.
		자체로 마당에 하수도와 새면대를 만들었다.
		도둑놈 때문에 담장을 높였다.
		자체로 수도를 놓고 이중벽을 설치하고 개인변소를 만들었다.
주거적용 행동	규범적 적용	추방되어 받은 성냥곽집을 수리했다.
		집이 좁아서 늘렸다.
		다른 대책이 없어서 주어진 환경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었다.
		능력이 없어서 한 일이 없다.
		불편해도 관심을 둘 수 없었다.
		의견을 제기해도 안 되어서 참고 견디었다.
		자기 의사로 이사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직장이동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에서 배치해 준 곳으로 간다.
동거살이하면 방 1칸만 쓰게 되니까... 좌우간 방 2칸만 있으면 만족한다.		
공동생활이므로 대책이 없다.		

* 자전거를 주고 살던 집을 교환하여 주거이동을 했다는 의미임.

H씨는, ‘일반 사람들의 자녀는 결혼하면 다른 사람들이 살던 집에 들어가는데(동거살이) 방 하나 부엌 하나에서 시작한다. 급수가 올라가 작업반장 정도를 하면 조금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들 선에서는 집을 서로 교체도 못하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1960년부터 35년간 북한에서 생활한 D씨는 3번 이사를 했는데 ‘우리 가족은 북송교포에 대한 당의 배려로 동거살이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사를 마음대로 못한다. 당에서 다 조절하는 것이니까 간부들이나 왔다갔다 한다. 일반 사람들은 그 집에서 태어나면 그 집에서 죽는다.’라고 증언하여 주거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북한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또, H씨는 ‘대한민국으로 올 자금을 마련하려고 살던 아파트하고 단층집을 바꿨는데 집이 너무 떨어져 새로 지었다. 수숫대로 쌓아서 다 쓰러질 것 같

은 집이었는데 바꾼 사람이 자재를 대 주었고 우리는 짓기만 했다.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집 허가(입사증을 준다는 의미임)를 내준다.’고 설명하여 주택의 매매는 물론 신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주거이동과 주거개보수의 구체적인 행동사례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주거적용 행동 중에서 자신의 주거규범을 낮추어 불만을 해소하는 규범적 적용은 40.2%로 많았는데, 이는 주거문제의 결정이나 선택의 범위가 제한된 북한 사회의 제도가 주원인이라고 판단된다. 규범적 적용의 구체적인 예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주거행동들이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는 합법적으로 주거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난 방용 땀값을 구하려고 부정을 많이 했다’ ‘석유공급이 모자라 운전수 등과 디젤유를 비법적(불법적이라

는 북한 용어)으로 구했다' '장거리에서 연탄을 자체 해결했다' '집의 매매나 개인적으로 짓짓는 일이 합법적은 아니나 일부계층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증언에서 확인된다.

또, 집 고칠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했다거나, 탈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팔았다거나, 외국에서 냉장고 등을 들여와서 집을 샀다는 등의 주거행동을 보면, 북한 주민들이 주거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주거조정 행동의 사례는 매우 적으나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적극적인 주거행동이 표출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일반 사회에서 주거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시도되는 주거이동은 북한에서 시도되기 어렵기때문에 북한 주민은 주택개보수 등으로

주거불만을 줄이거나 기존의 주거상황에 자신을 맞추는 규범적 적응을 비교적 많이 시도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4. 탈북인이 남한 주거생활에서 인식한 이질화

탈북인이 남한의 주거생활에 있어서 인식한 이질화에 대해서 설문조사의 개방형 질문형식을 통해 알아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질화를 가장 많이 인식한 유형은 주거설비(44.9%)로 급배수, 난방, 화장실 등의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었다. 다음은 북한과는 달리 남한에서는 주택을 부의 표현수단으로 여기고(18.4%) 있으며 주택의 매매가 자유롭고 개인이 소유하고(10.8%), 주택가격, 전세나 월세,

〈표 5〉 탈북인이 남한 주거생활에서 인식한 이질화의 유형과 사례

이질화 유형	이질화를 인식한 사례
주거설비	난방연료로 가스를 사용하고 사기변기와 욕실이 설치되어 있다.
	더운물, 찬물이 시간에 관계없이 나오며, 싱크대, 냉장고 등이 있다.
	화장실, 목욕탕, 난방, 전기, 수도, 승강기 등이 편리하게 발달되어 있다.
	밥할 때 불을 안 피우고 가스로 밥을 한다.
	남한의 임대아파트 주택설비가 평양의 최고급 주택보다 낫다.
주거의 의미	집이 철저하게 부의 상징이다.
	자기 기호에 맞게 집을 짓거나 기호에 맞는 집을 리용할 수 있다.
주거규모와 방수	방의 크기가 북한에 비하여 너무 크다.
	남한에는 개인방과 거실이 있는 것이 다르다.
주택매매와 소유	북한에서는 집을 사거나 팔면 법에 걸리므로 돈을 주고 집을 사고도 뇌물을 주고 사업을 해야 한다.
	자기 마음대로 주택을 사거나 팔 수 있으며 각자 능력에 따라 나쁜 집, 좋은 집을 선택한다.
주거관련 비용	주택을 돈으로만 사야 하고 엄청나게 비싸다.
	북한은 입사증만 있으면 되는데, 남한은 입주시 많은 금액(임대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낸다.
	주거유지비가 많아서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
기 타	북한에서는 주택하면 방수를 따지는데, 남한에서는 얼마나 큰가를 따진다.
	북한에는 남한처럼 부부방이나 아이들방이나 하는 방의 명칭은 없다.
	북한에는 석탄재 이외에는 쓰레기가 없는데 남한은 쓰레기가 많을 뿐 아니라 중요하게 다룬다.